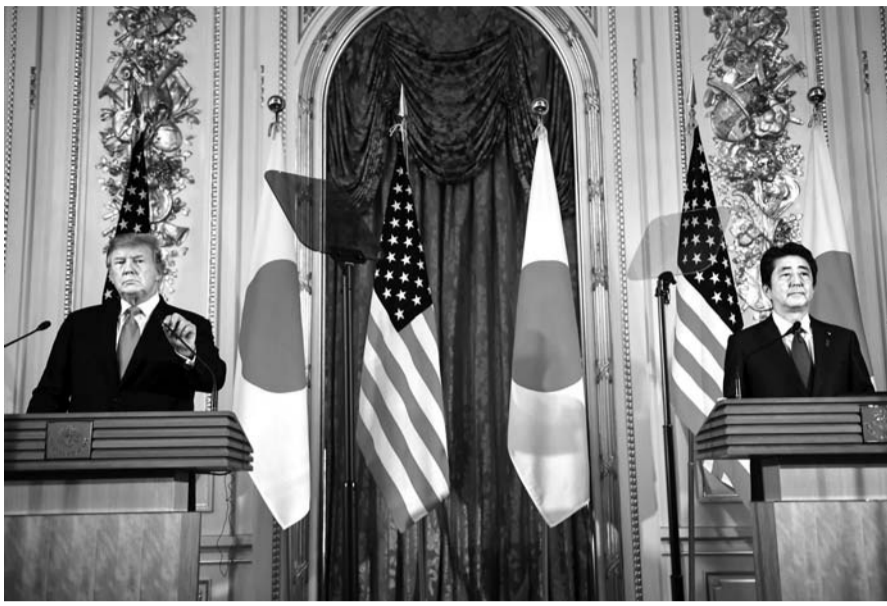


아베 “북한 문제 미·일 입장 완전히 일치”

트럼프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
“北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유감”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나고 싶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모토야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도쿄 모토야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한 조정을 했다”며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년에 이어 다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면회해서 가족들을 격려해 용기를 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은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결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지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연대하면서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행동하겠다”면서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 될지에 관계없이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이달 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으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전망이 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24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해 이

게 됐다”면서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일본 기업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일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쌍방이 윈-윈(win-win)하도록, 조기에 성과를 올리도록 논의를 가속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을 빼놓은 채 “호주, 인도, 아세안, 미국, 프랑스 등 관계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미일 정상이) 일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그가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스모 경기장을 방문해 트로피를 수여한 것과 관련해 “스모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면서 “트럼프, 고맙다(トランプ、ありがとう)”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레이와라는 새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나와 아내의 소중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첫 국민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부인의 우정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3〉 주전충

주전충(朱全忠, 852-912)은 안휘성 출신으로 당말 황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왕조의 실력자가 되었다.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세워 천하가 오대십국(五代十國)으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명은 주온(朱溫)으로 황소의 반란군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냈다. 유력 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반군 지도부와 갈등으로 당에 귀순하였다. 하중절도사 왕충영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는데 황소 측근인 맹계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반군의 미래를 어둡게 본 주온은 황소의 감군사 임실을 죽이고 당에 투항하였다. 희종은 크게 기뻐해 좌금오 위대장군, 하중행영 부도조사 직위를 주었다. 전충이라는 이름도 하사했다. 주온은 당을 배신하고 황소와 결탁한

904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최윤의 제택을 공격해 일당을 모두 죽였다. 소종을 압박해 근거지 대량과 가까운 낙양으로 옮긴 다음 시해했다. 904년 13세 휘왕 이조를 이적으로 개명해 즉위시키니 당 최후의 황제 예제다. 907년 당 제로부터 양위 받아 후량을 세웠다. 당 왕조는 290년만에 멸망했다. 예제는 제음왕에 봉해졌다가 독살되었다.

그는 성정이 잔인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한 야심가였다. 895년 주신과의 전쟁에서 3천명의 병사를 생포했다. 그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가정사도 복잡했다. 정실인 장 왕후가 죽자 황음무도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며느리들과 근친상간을 자행했다. 양자 주우문의 처 암살을 총애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아들 주우규는 내주자사로 좌천되

당 멸망 시키고 ‘오대십국’ 시대 열어

체주절도사 진종권 세력을 평정했다. 887년 절도사 주신, 주군 형제를 토벌했다. 조정은 공을 인정해 덕정비를 세웠다. 888년 희종의 뒤를 이은 소종은 3000호를 추가로 하사하고 고향 이름을 패왕리(沛王裏)로 변경하였다. 소종은 환관 세력과 갈등 상황이었다. 자신을 황제로 옹립한 환관 양복공이 환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소종 황후의 아버지 왕괴를 절도사로 임명하려는 소종과 갈등을 빚었다. 황제는 양복공을 파면했다. 양복공은 한중으로 도망쳐 조정에 반항했다. 봉상절도사 이무정이 양복공을 진압하면서 실제로 떠올랐다. 이로써 주전충과 이무정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소종은 재상 채운과 환관 주살 계획을 세웠는데 거사 전에 누설되었다. 최윤은 주전충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환관의 항복을 받아냈다. 주전충과 최윤은 성내 환관을 몰살했다. 장안의 환관과 각지에 파견된 환관도 모두 살해되었다. 이로써 왕조를 괴롭혔던 환관의 전횡이 사라졌다. 조카 주우륜을 장안에 남겨놓고 본거지인 대량으로 돌아갔다. 903년 조카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조카의 죽음을 뒤에 최윤이 있다고 후당을 세웠다. 오대십국의 분열 시대가 약 50여년간 이어졌다.

었다. 아버지를 시해하기로 결심하고 금위군 지휘관 한경과 결탁해 아버지의 처소를 급습했다. 주우규는 “늙은 도적이 여기 죽는다”고 소리치며 등을 찔러 죽였다.

황소가 장안에서 쫓겨나 낭중에서 비참하게 죽은 반면 그는 새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황소가 뚜렷한 근거지 없이 도처를 유랑한 반면 그는 대량의 아버지 왕괴를 절도사로 임명하려는 소종과 갈등을 빚었다. 황제는 양복공을 파면했다. 양복공은 한중으로 도망쳐 조정에 반항했다. 봉상절도사 이무정이 양복공을 진압하면서 실제로 떠올랐다. 이로써 주전충과 이무정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소종은 재상 채운과 환관 주살 계획을 세웠는데 거사 전에 누설되었다. 최윤은 주전충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환관의 항복을 받아냈다. 주전충과 최윤은 성내 환관을 몰살했다. 장안의 환관과 각지에 파견된 환관도 모두 살해되었다. 이로써 왕조를 괴롭혔던 환관의 전횡이 사라졌다. 조카 주우륜을 장안에 남겨놓고 본거지인 대량으로 돌아갔다. 903년 조카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조카의 죽음을 뒤에 최윤이 있다고 후당을 세웠다. 오대십국의 분열 시대가 약 50여년간 이어졌다.

美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 열흘째 이어져... 10명 숨져

미국 중서부에서 최근 토네이도(소용돌이 바람)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미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중순부터 중서부의 오클라호마-캔자스-네브래스카-미주리-아이오와까지 폭넓은 지역이 토네이도의 영향권에 포함됐다. 폭우와 강풍, 우박을 동반한 악천후 속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토네이도는 북상하면서 벌써 열흘째 중부지역을 휩쓸고 있다. 지금까지 170여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말인 25일 늦은 밤 서부 오클라호마 시티로부터 40km 떨어진 인구 1만7000명 규모의 엘 리노 시에 토네이도가 상륙했다. 엘 리노 시는 2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상자 몇몇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주리에서 5명, 아이오와에서 3명이 각각 사망했다. 오클라호마에서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전체 희생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오클라호마주는 77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유럽 정치지형 대변화... “기성정당 몰락, 극우·녹색 대약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우파+중도좌파 과반 붕괴
극우 포퓰리스트 3개 그룹
172석 얻어 의석 4분 1 근접



유럽의 정치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난 수십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세력이었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크게 세력을 잃고,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대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는 28개 회원국에서 26일 밤 투표표를 모두 마감한 뒤 개표를 한 결과를 토대로 유럽의회 정치그룹별 잠정 의석 수를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시사각각 업데이트한 정치그룹별 잠정 의석수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전체 751석 가운데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그룹이 179석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의석수(217석)보다 38석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S&D) 그룹은 150석을 얻었다. 이로써 S&D는 제2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현재 의석수(186석)보다 36석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정을 통해 유럽의회를 수십년간 지배해온 EPP와 S&D의 의석수는 329석에 불과해 과반반체제(376석)가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통합 강화를 주장하는 중도 성향의 자유민

주당(ADLE) 그룹은 현재(68석)보다 39석이 많은 107석을 차지하며 제3당에 올랐다.

이에 따라 EPP와 S&D가 유럽의회는 물론 EU 정치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과 같은 반(反)EU 정치세력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선 ADLE 그룹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녹색당(Green) 계열은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에 힘입어 현재 의석수(52석)에서 18석을 늘리며 70석(전체 의석의 9.3%)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반(反)난민·반(反)EU를 내세우는 3개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은 현재 의석수(154석)보다 18석 늘린 172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정책 등 EU에 반대하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전체 유럽의회 의석의 4분의 1 가까이(22.9%)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60여년 EU 역사상 처음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첫 회원국 탈퇴를 앞둔 EU에서 원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석을 대거 상실한 EPP와 S&D 그룹 내에선 반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 신원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